

## 고려해운

### 인천-상해간 정기항로 개설

고려해운(사장 전문준)은 2월4일 인천항 대한통운 내항부두에서 인천광역시 오제세 행정부시장, 한준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등 관계인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인천-상해간 컨테이너 정기항로 개설 취향식을 가졌다.

고려해운은 이날 컨테이너선 ‘씨니 로펠’ 호를



투입, 동영해운과의 공동운항을 통해 주 2항차 정요일 서비스를 개설했는데, 전문준 사장은 취향식 기념행사에서 “고려해운은 아시아역내 컨테이너 정기선사로서 현재 사선 15척, 용선 12척 등 총 27척의 컨테이너선을 운항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 중국은 물론 동남.서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전역의 수많은 물류거점에 한국 수출입 화물뿐만 아니라, 삼국간의 물동량을 신속·정확하게 수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 사장은 “그동안 부산을 경유했던 인천항발 화물을 직접 인천항을 통해 수송하게 됨으로써 운송시간의 대폭 단축과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하여 고객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최근 대중국 물류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천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 대한해운

### 남부발전과 18년 COA 계약

대한해운(사장 이진방)은 최근 한국남부발전과 국내 최초 18년 장기용선(COA) 계약을 체결했다.

대한해운은 지난 1월 29일 실시된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임택)의 연료탄 수송을 위한 대형 살물선 국제 일반경쟁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돼 18년간의 장기용선계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18년 장기 살물선 용선계약은 국내에서 1996년 이후 8년 만에 시행된 입찰일 뿐 아니라, 국제 경쟁입찰에서 국내선사가 수송권을 확보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 입찰은 지난 1월 13일 입찰 공고되어 1차 입찰가격 심사 및 2차 적격심사를 거치는 등 기존의 전용선계약과 일반 용선계약의 장점을 수용한 혼합 입찰방식으로 진행되어 적격심사 대상업체에 국내 3개 선사 및 일본 1개 선사가 선정됐으며, 최종적으로 대한해운에 낙찰됐다.

대한해운의 관계자는 “이번 한국남부발전 장기용선계약으로 대한해운은 전체 계약기간동안 발전용 유연탄을 약 2,700만톤을 수송하게 되며, 그로 인한 매출은 약 2,160억에 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장기용선계약에 17만톤급의 신규 선박을 투입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발전자회사와의 전용선대와 더불어 장기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 동남아해운

### 중고 벌크선 1척 도입

동남아해운(회장 양길용)이 3만톤(DWT)급 벌크선 1척을 도입했다.

동남아해운은 2월 11일 “3만톤(DWT)급 벌크선 ‘썬샤인 쥬블리(MV. Sunshine Jubilee)’ 호의 인도를 마치고 현재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남아해운은 ‘썬샤인 쥬블리’ 호의 도입을 위해 지난해 9월 29일 사이프러스 선주와 MOU를 체결, 추진해 왔다.

‘썬샤인 쥬블리’ 호는 1984년 일본의 Kanasashi Shipbuilding에서 건조한 선박으로, 2만 9,112DWT, 1만 7,214GT급으로 운항속도는 13노트이다.

동남아해운측은 “본 선박은 사용처가 매우 다양하여 영업 활용도가 크며, 동사는 초강세일로 인 현 벌크선 시장에서 운항원가를 절감하여 수익성 향상을 꾀하는 동시에 사선 확보에 따른 운항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며 사선 도입의 의미를 전했다.

동남아해운은 현재 30척의 선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컨테이너선대는 20척이며 4척의 자사선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벌크선을 도입함으로써 동남아해운은 모두 5척의 사선을 보유하게 됐다.

## 범주해운

### 공컨테이너 1800대 제작발주

범주해운(회장 김남빈)은 올해 공컨테이너 1,800대를 신규 제작한다.

범주해운은 최근 증대되는 집하물량에 대한 원

활한 컨테이너 공급 및 CLEAN 컨테이너 공급으로 대 해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2004년도 NEW BRAND OWN CONTAINER를 생산·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범주해운이 (주)진도에 제작발주한 신규컨테이너는 중국의 대련과 상해에서 나누어 제작된다. 대련공장에서 20'DRY 컨테이너 1000대가 제작되며 40'DRY 컨테이너는 100대 40' 하이큐브컨테이너는 200대가 생산된다. 또한 상해공장에서 40'DRY 컨테이너 200대와 40'하이큐브 컨테이너 300대가 제작된다.

범주해운은 이번에 발주된 공컨테이너는 30톤 베이스의 강화 컨테이너로 구 컨테이너에서 문제시됐던 과중량화물 선적이 가능하며, FLOOR 배열 및 우레탄 코팅으로 화물에 의한 컨테이너 손상 및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세양선박

### 한전과 장기화물운송계약

세양선박(회장 임병석)은 지난 2월 5일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와 5년간 장기화물운송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였다.

이번 수주 건의 기간은 2004년 3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5년 기간이며, 운송화물은 호주산 또는 인도네시아산 발전용유연탄이다.

화물량은 연간 100만톤에서 150만톤, 5년간 500만톤에서 750만톤에 달하는 대규모 계약이다. 이를 매출로 환산시에는 선적지에 따라 차등화된 운임을 적용받으나 최대 86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 계약으로 세양선박은 한국전력 자회사인 남동발전 1,306만톤, 중부발전 612만톤, 동서발전측과 270만톤 등, 총 6건의 장기운송계약을 채

결하게 되었으며, 그 규모는 2,188만톤, 금액으로  
는 1,700억원 규모이다.

이중 금년도는 594만톤을 운송하여, 360억원  
의 매출이 발생될 계획이며, 이는 지난 2002년 연  
매출액인 469억원의 7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모회사인 씨븐마운틴해운측에서 700만톤  
에 달하는 한전물량을 보유하고 있어 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 신성해운

#### 넷씨큐어와 보안서비스 계약

신성해운(사장 박영규)은 최근 넷씨큐어사와 보  
안관계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신성해운  
은 해운업체 최초로 보안 솔루션에서 관계서비스  
까지 완벽한 보안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

신성해운에 따르면, 고객 및 관계사들과의 원활  
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국내외 대리점들을  
본사의 물류 ERP 시스템에 연결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일년 365일 하루 24시간 논스톱으로 시  
스템을 운영해야만 하는 업무의 특성상 1차적인  
IT 시스템 구축은 어느 정도 완료되었으나, 보안  
시스템 미비로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보안시스  
템 구축을 추진해 왔다.

신성해운 관계자는 과거에는 보안관련 사항이  
투자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항목이었지만, 지금  
은 빈번해진 바이러스나 해킹문제로 보안은 기업  
의 실제적인 경쟁력과 직결한다는 인식이 일반화  
되고 있다며, 이번 계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 한진해운

#### 작년 영업이익 4320억

한진해운(사장 최원표)은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  
해 지난해 4,320억원의 영업이익과 3,308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한진해운은 2003년 매출액은 전년보다  
23.1% 증가한 5조 5679억원을 기록했으며, 주당  
15%의 배당을 실시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고 밝혔다.

영업이익이 전년(117억원) 대비 35배 증가한  
4,320억원을 기록한데 대해 한진해운측은 “컨테  
이너부문의 259만TEU 수송량 증대와 운임회복  
에 힘입어 매출이 증가했고, 외국 유수선사  
(CKYHS GROUP)와 전략적 제휴 강화 등 비용구  
조 개선 노력 및 부정기 부문의 시황 호전에 기인  
했다”고 언급했다. 동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185억원) 대비 16배 증가한 3,308억원을 달성하  
였으며 부채비율은 400%대로 떨어졌다.

이로써 한진해운은 1999년, 2000년 10% 이어  
5년 연속 현금 배당을 실시하게 되었다.

### 흥아해운

#### 화물추적서비스 업그레이드

흥아해운(회장 이윤재)은 최근 홈페이지상 화물  
추적서비스를 업그레이드, 그동안 선박스케줄 변  
동 등으로 오차가 발생하던 것을 완전히 해소했  
다고 밝혔다.

흥아해운에 따르면, 화물추적서비스는 현재 컨  
테이너의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주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컨테이너 번호, 선하증권  
(B/L) 번호, 부킹번호를 이용해 화물의 국내 터미  
널 반입여부 및 소재, 선적항, 도착항, 도착예정  
시간 등 화물 선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홍아해운 관계자는 “화물추적서비스를 통해 화물의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화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고객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 2004년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필재)은 지난 2월 19일 부산마린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04년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에게 선원들에 대한 사회복지제도를 강화를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과 한국선주협회 장두찬 회장, 각 산별 연맹 위원장, 유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에서 김필재 위원장은 이날 대회를 통해 해상노련 지난해 다양한 분야에서 위력적인 활동을 펼친결과 외국 선박관리업자를 선주로 간주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저지하고 어선원의 최저임금 12.3% 인상, 선원분야 외국인 고용허가제 적용제외, 해상교통사고처리특례제도 신설 등과 같은 큰 성과를 일궈냈으며 2004년 한해도 선원노동복지의 실현과 선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 앞서 해상노련 인천사무소 이성국 본부장이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32명에 대한 감사패와 공로패 및 표창패 등을 수여했다.

특히,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선원조합원의 사회복지제도 강화와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문이 채택·발표됐다.

해상노련은 올해 선원의 고용안정 정책과 사회안정망 제도를 강화하고 모든 선원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외취업선원의 고용보험 적용, 원직업의 중요성 인정과 자긍심 부여를 위해 연근해어선원, 내항선원, 해외취업선원에 대한 월급여 제한과 수당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 완전 면제, 선원의 교육비 국비화하고 현행 교육제도의 효율적 개선, 선원분야 병역혜택의 확대, 사회 공공시설의 편의 제공, 선원용 임대아파트 건립과 선원의 날 제정, 선원 및 선원가족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동절과 바다의 날 정부포상 확대, 순직선원 유자녀에 대한 장학제도 확대 실시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 2004년도 정기총회 개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은 2월 27일 힐튼호텔에서 2004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2003년도 사업실적, 결산내역을 심의한 뒤 이를 승인하는 한편, 200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 및 재규정 개정안

을 의결했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연맹 제12대 총재에 SK해운 이정화 사장을 선임하고, 임병석 씨브라운해운 회장을 부총재에 선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총재 취임식 및 2003년도 지방연맹 평가 우수연맹 시상 등이 있었다.

## 한국선급

### 2004년도 정기총회 개최

한국선급(KR)은 2월 27일 전경련회관 제1회의실에서 제42차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함께 이날 총회에서는 임기만료된 이갑숙 회장의 3년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으며, 기술본부장에 민경수 전 선체기술부장을 선임했다. 이에 앞서 공개 모집하여 사업본부장으로 선임되었던 김종원 본부장도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KR은 김종원 사업본부장, 민경수 기술본부장, 라수현 경영지원본부장(기존), 김기정 검사본부장(기존) 등 4개 본부장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동안 KR 본부장으로 있던 김태우씨와 이세창씨는 이 날자로 해임됐다.

KR은 이날 총회에서 2003년도 한해 동안 KR 선급의 선박이 항만국통제(PSC)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한 결과, Tokyo MOU는 전년도와 비슷한 출항정지율을 달성했고 Paris MOU는 전년도에 이어 단 1척만 지적되는 등 지난해 주요사업실적을 보고했다.

##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의회

### 2004년도 정기총회 개최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회장 홍용찬)는 2월 19일 오전 11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 3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비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해 사업실적과 예산결산을 승인하고 올해의 예산과 사업계획안을 함께 심의의결했다.

또한 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마상근 전 회장과 우주해운의 김종선차장에 대해 공로패를 각각 수여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해양수산부의 정상호 해운물류국장은 해양수산부장관 치사를 대독하면서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운대리점업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됨으로써 대리점업계가 앞으로 연간 약 130억원의 부가세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올해말까지 주요 해운국이 시행하는 해운물류제도를 정착시키는 한편 부산항만공사의 안정고착을 지원하는 등 고객지향적이고 효율적인 항만관리와 운영체제를 구축하며 항만의 하역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는 올해 △해상운임 현금징수제 적극 추진 △각종요율 합리적 징수 △EDI방식 업무 적극 추진 △해운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회원사 시장질서 확립 및 공동발전 추구 △항만이용의 극대화 및 요율의 최소화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 양민아역협의회 2004년도 정기총회

### 신임회장에 곽영욱 대한통운 사장 선임

한국항만하역협회는 2월 20일 소피텔엠버서더호텔에서 2004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대한통운

곽영욱 사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또 신임 곽영욱 회장의 긴급 발의에 따라 협회의 명칭을 향후 '한국항만물류협회'로 개정하기로 결의했다.

협회는 올해 중점사업 추진방향을 △부두운영 회사제도와 항만공사제도 도입에 따른 회원사의 부담경감 대책 △노사 협조체제의 공고화 △회원사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 발굴 △항만 하역산업에 대한 제도 및 법령의 개정 등에 두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새로 회장에 선출된 곽영욱 사장은 신임 회장 수락 연설에서 "지난해 전국 항만 물동량은 9억 7,000만톤으로 전년대비 3.5% 증가에 그쳤으며, 부산항과 광양항은 증가했지만 울산항과 인천항은 감소했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장 현실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기업들이 정책 부서에 대한 비판이나 주장보다는 근원적인 핵심의 성장동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혁신의 노력과 진정한 인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

### 2004년도 정기총회 개최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회장 송정섭)가 무면허업체들이 포워딩서비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이하 복운협)는 2월 6일 프레지덴트호텔에서 "200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날 회원사로부터 건의된 △무면허업체의 포워딩서비스에 대한 방안 모색과 △공항과 항만 CY에서의 해외인력 활용을 통한 포워딩업체 인건비 절감을 2004년 사업계획에 추가시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2004년 사업계획으로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포워더 전용 CFS를 서울에 있는 포워더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인천국제공항 관세자유지역내 포워더 전용 항공화물창고를 건립하며 집화수수료제도 도입과 협회 홈페이지의 악성미수하주란 신설 등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 해운업계 인사이동

#### ● 대한해운 승진인사 단행

대한해운(사장 이진방)은 3월1일부로 이열기 이사를 상무로 승진시키는 등 총 17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대한해운은 이번 대규모 인사에 대해 지난해 실적호전에 따라 직원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해운은 지난해 실적 호전에 따라 직원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대폭적인 승진인사를 3월 1일부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승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무 : 이열기 동경사무소장 △

상무보 : 송관영 보험법무팀장, 조윤형 부정기선 1팀장 △이사대우 : 고남진 총무팀장, 박찬민 해무팀장, 안계혁 기획팀장 △부장 : 허동훈 부정기선 2팀 △부장대우 : 이만호 전용선팀, 장근철 부정기선 1팀 △차장 : 한동원 보험법무팀, 이동정 부정기선 2팀, 정병인 기획팀, 설정호 재무팀, 조용운 해무팀 △과장 : 김보현 부정기선 1팀, 김기완 전용선팀 △대리 : 조태원 부정기선 1팀

#### ● 세븐마운틴해운 정기승진인사

세븐마운틴해운(회장 임병석)은 2월1일부로 세븐마운틴해운을비롯하

여 계열사인 세양선박, 케이씨라인의 육상직 임직원에 대한 2004년도 정기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세븐마운틴해운] △이사대우 김정균 보험법제팀장 △부장 이석현 영업1팀장, 최기수 영업2팀장 △과장 이정우 영업2팀

[세양선박] △상무대우 허순철 자금담당임원 △이사 강문열 총무담당 임원 △부장대우 박영선 자금팀장 △차장대우 황보주경 영업2팀장 △대리 배영근 기획팀

[케이씨라인] △상무대우 박명종 관리담당임원 △이사대우 한영환 △부장대우 최재혁 안전관리팀장 △과장대우 고세현 안전관리팀